

統合的 三界觀과 地·人관계의 人尊 論理

- 「地上神仙실현」 관련 公事를 중심으로 -

高南植*

目次

- I. 序論
- II. 地上神仙실현의 基底와 可能性
- III. 땅과 인간의 調化논리에 나타난 統合性
- IV. 統合性에서 본 地上神仙 公事の 層位
- V. 結論

I. 序論

「인간개조 지상신선실현」은 대순신앙에서 세가지로 되어 있는 목적중 하나이다. 종교가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문제에 중점을 두는 것에 입각해 볼 때 대순신앙의 목적도 그 지향점은 인간과 인간세계에 대한 완성에 있다. 이를위해 대순사상은 천계 지계 인계를 총체적으로 아우르는 기저 위에서 출현된 것으로 삼계의 통합적 조화를 추구해 우주적 평화를 이루려는 사상이다.

천 지 인 삼계는 유기적으로 연관되며 하나의 생명체로서 그 유기성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관점은 후천이라는 이상세계를 이루려는 대순사상의 목적에 있어 지상에 신선을 실현하고 지상에 천국을 건설한다는 지계에 터전을 둔 주장에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지상신선화는 도통과 관련된 공사에서 그 연관성을 찾을 수 있다. 이에 이 글은 「인간개조 지상신선실현」에 있어

* 대진대학교 대순종학과 교수

중요한 두 가지 점을 「지상(地上)」과 「신선(神仙)」에 있다고 보고 논의를 전개하였다.

지상의 문제에 있어서는 삼계적 차원에서 땅이 차지하는 위상과 땅 관련 공사가 추구하는 양상이 인간계 공사와 유기적 관계에 있음을 보고, 종말이 아닌 「지상주의(地上主義)」적 종교관을 표방하는 대순사상에서 그 지향점이 인존사상에 있음을 살펴보았다. 또 신선에 있어서는 신선화가 도통과 연관된 것이기에 도통 관련 공사들을 지계와 인계의 상관성 속에서 살펴보았다. 이러한 논의는 지상신선실현의 기저를 「해원」과 「인존」에 바탕해서 찾아 본 것이다.

주지의 사실로 천지공사는 총체적 요소들이 수반된 새로운 방법론들이 가미된 것이기에 이 글에서 해석을 시도한 내용들은 시론적 일(-) 단면임을 미리 밝혀 둔다.

Ⅱ. 地上神仙 實現의 基底와 可能性

이 장에서는 「인간개조 지상신선실현」의 기저(두가지)와 가능성(세가지)에 대해 보기로 한다. 대순사상은 땅에 대한 상대적 가치를 강조하고 현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현실의 다양한 문명의 충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을 고쳐 개선하여 후천이라는 이상세계를 창출하려는 면을 갖고 있다.

세계의 모든 족속들은 각기 자기들의 생활 경험의 傳承에 따라 특수한 사상을 토대로 색 다른 문화를 이룩하였으되 그것을 발휘하게 되자 마침내 큰 시비가 일어났도다. 그러므로 상제께서 이제 민족들의 제각기 문화의 정수를 걷어 후천에 이룩할 문명의 기초를 정하셨도다. (교법 3장 23절)

각 민족이 지역적 특성들을 중심으로 한 문화의 발현과 그로 인한 세계 문화의 충돌은 인류사에서 수많은 쟁투와 다툼을 야기시켜 재화와 참상을 입혀왔다. 이러한 국면을 전환시켜 삼계에 화평을 이루는 것이 상제의 「천지공사」이다. 이에 있어 삼계중 「지계(地界)」는 인간이 발을 딛고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이다. 인간에게는 어머니의 품과 같은 의미로서 천계보다 더 밀접한 관련성을 상대적으로 갖는다 하겠다. 지계에 대한 가치 평가는 천과 지사이의 조화적 조율의 면도 있지만 인간에 대한 애착과 존중에서 기인한다. 지상신선실현의 기저에 대해 두가지 면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인존시대라는 새로운 시운의 도래(到來)를 기저로 한다.

삼계의 유기성속에서 우리는 각계의 주체적 중요성과 함께 그것이 상호 관계하며 만드는 질서를 생각해야 한다. 특히 인간은 삼계 속에서 위치하는 수동적이면서도 능동적 존재이기에 더 그렇다. 삼계사상은 이러한 천지인 삼계의 유기적 관련 틀을 기저로 총체적 관점에서 세계를 바라보는 것으로 가이아 이론과도 그 맥을 같이 한다.

대순사상의 목적은 이러한 삼계 사상의 표현이라 볼 수 있으며 특히 인간 중심적 차원에서 그 의미가 표출되고 있다. 삼계에 대한 유기성의 강조는 인간 존중 정신의 총체적 표현이고 우주적 사고임을 볼 수 있다. 천지의 존재가치가 인간을 중심에 둔 사고에서 유래한 것이라는 점을 삼계라는 우주에 대한 삼분의 체제안에서 상대적 중요성하에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인존시대의 도래라는 시운과 관련되는 것이다.

천존과 지존보다 인존이 크니 이제는 인존시대라. 마음을 부지런히 하라. (교법 2장 16절)

위의 인용문을 볼 때 삼계의 유기성(有機性)속에 인존시대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목적을 살펴보아야 하는 면이 있다. 이에 지상신선화는 결국 인간적 측면의 강조라는 그 출현배경을 갖게 된다. 대순사상에 나타나는 일반적 의미의 인간에 대한 존중의 면을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이 도삼이 어느날 동곡으로 상제를 찾아 뵈니 상제께서 "사람을 해치는 물건을 낱알이 세어보라" 하시므로 그는 범, 표범, 이리, 늑대로부터 모기, 이, 벼룩, 빈대에 이르기까지 세어 아뢰었도다. 상제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사람을 해치는 물건을 후천에는 다 없애리라"고 말씀하셨도다. (공사 3장 8절)

사람을 해치는 물건을 없앤다는 것은 사람의 생명에 대한 존중이다. 단호히 선천에서 사람에게 해를 주던 것들을 제거한다는 것은 다른 것들에 비교해 상대적으로 소중한 인간의 위상을 말하는 것으로 「인존이 크다」라는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 인간존중이 상제의 뜻임을 보인 것으로 상제의 대순과 천지공사의 목적이 여기에 있다. 개혁을 간청하는 종도에게 큰 홍수를 지어 인간 존중의 정신을 깨닫게 한 일화는 이러한 인존정신의 발현이고 천지공사의 지침이며 근간이라 할 수 있다.

일의 마땅함과 왕성함은 천지에 있다. 반드시 인간에게 있지 않다. 그러나 인간이 없으면 천지도 없다. 그러므로 천지가 인간을 낳아서 쓴다. 인간으로 태어나 천지가 인간을 쓰는 때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어찌 가히 인간의 삶이라 말할 수 있는가.(事之當旺 在於天地 必不在人 然 無人 無天地 故 天地生人 用人 以人生 不參於天地用人之時 何可曰人生乎)(교법 3장 36절)

천지의 작용과 인간의 역할이 함께 설명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인간이 없으면 천지도 없다」라는 주장이 삼계에서 인간의 최존성(最尊性)을 보여준다. 이와 함께 뒷 부분에서는 인간적 삶의 가치를 천지가 인간을 쓰는 시운에 참여하는데서 찾아야됨을 말하고 있다. 인간의 더 높은 가치의 추구하고 그로 인한 인간의 발전은 천지가 늘 제시하는 시운을 잘 간파해서 찾아나가야 이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본래부터 인존이 높은 가치였으나 그것이 더 나아가 인존 시대라는 시대적 운기 안에서 새로운 의미를 띄고 역동적으로 주장되는 상황들이 있음을 읽을 수 있다. 이러한 면은 지상에 대한 강조와 인간 완성이라는 두가지 갈래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지상신선(地上神仙)을 실현하는데 있어 필요한 것이 해원이 된다.

둘째로 해원으로 지상신선 실현의 토대를 만들며 나아가 삼계 통합적 질서를 구축한다.

삼계가 통합적으로 존재한다는 삼계사상은 천지인 삼계에 있어 어느 계도 홀로 존재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이제 이상세계는 인존의 시운아래 지상에 건설되고 이에 따라 각 계의 유기적 소통에 장애를 주어온 상극으로 인한

원한을 제거하는 역동적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천지공사이고 이는 해원을 기저로 추진된다. 이를 통해 대순사상에서 주장하는 「지상에 신선실현」과 「지상에 천국건설」로 표현되는 일도 가능할 수 있다. 선천에서 삼계적 상호 유기성에 장애의 요인이었던 원한에 대해 보기로 한다.

선천에는 하늘만 높이고 땅은 높이지 아니하였으되 이것은 地德이 큰 것을 모름이라. 이 뒤로는 하늘과 땅이 일체로 받들어야 하느니라.(교법 1장 62절)

하늘과 땅을 일체로 받드는 일은 해원을 통해 가능한 것이다. 해원공사로 평등성을 확보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된다. 삼계의 상통은 지덕(地德)을 알고 천에 대해 상대적으로 비하되었던 땅을 해원시킴으로써 회복되며 나아가 지상에 신선이 존재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될 수 있다.

이제 해원시대를 맞이 하였으니 사람도 명색이 없던 사람이 기세를 얻고 땅도 버림을 받던 땅에 기운이 돌아오리라.(교법 1장 67절)

또 같은 지계(地界)에서도 상대적으로 버림을 받던 곳에 기를 돌게 함으로써 새로운 국면이 전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이것은 인계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명색이 없던 사람들이 원을 푸는 상황이 전개되어 막혔던 삼계의 질서가 통하는 양상을 만들게 된다. 삼계에서 각 계간의 해원과 계내에서의 해원을 이뤄 삼계 전체의 해원하에 이상적 세계상을 구현하게 된다. 이러한 경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인간 정신의 무자기, 인간 육신의 지상신선화, 세계의 지상천국화이다.

또 상제께서 가라사대 "지기가 통일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인류는 제각기 사상이 엇갈려 제각기 생각하여 반목 쟁투하느니라. 이를 없애려면 해원으로써 만고의 신명을 조화하고 천지의 도수를 조정하여야 하고 이것이 이룩되면 천지는 개벽되고 선경이 세워지리라" 하셨도다.(공사 3장 5절)

위에서 인간에 대한 일들이 땅의 영향하에 존재하는 것이며 지기의 통일은 인간 세상에 밀접한 영향을 주고 있는데 해원이 요체가 되어서 선경이 이루어짐을 볼 수 있다. 지상적 차원의 일들이 삼계에서 유기적 연계성하에

존재하는 맥락이 나타난다.

위에서 땅 기운이 발현되어 그곳의 미래적 모습을 공사로 처결하는 것과 함께 지기통일이라는 대전제하에 인간사의 다양한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 땅이 관련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땅을 기저로 한 지상주의적 인식이 인존의 차원으로 그 지향점을 잡고 있는 것이며 선행된 땅의 해원이 이루어지며 가능해진다. 해원과 관련된 요소에 있어 인계와 지계 사이의 연관속에 그 실마리를 찾고 그것이 삼계의 통합적 세계관을 강조하는 면을 볼 수 있다. 다음의 전명숙(전봉준)의 해원에 있어서도 또한 원한의 요소가 되는 밑고로 관군에게 잡힌 곳이 해원공사의 시작점이 된다.

상제께서 司命旗를 세워 전 명숙과 최 수운의 원을 풀어주셨도다. 상제께서 避老里 李化春의 집에 이르셔서 그에게 누런 개 한 마리를 잡고 술 한 동이를 마련하게 하고 뒷산의 소나무 숲에서 가장 큰 소나무 한 그루와 남쪽 양달에 있는 황토를 파오게 하고 백지 녀 장을 청 흥 황의 세 색깔로 물들여서 모두 잇고 베어 온 소나무의 한 윗가지에 달게 하고 백지 석장에 각각 시천주를 쓰고 그 종이 석장에 황토를 조금씩 싸서 함께 잇고 또 소나무 가지에 달고 그 나무를 집 앞에 세우시니 마치 깃대와 같은지라. 상제께서 종도들에게 가라사대 "이 곳에서 전 명숙이 잡혔도다. 그는 司命旗가 없어서 抱恨하였나니 이제 그 기를 세워주고 해원케 하노라." 다시 상제께서 사명기 한 폭을 지어 높은 소나무 가지에 달았다가 떼어 불사르시고 최 수운을 해원케 하셨도다.(공사 3장 2절)

위의 인용문에서 전명숙이 관군에게 잡혔던 피노리가 선택되어 그곳에서 사명기를 세워줌으로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은 전명숙 최수운 두 인물에 대한 해원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다.

상제께서 김 형렬의 집에서 그의 시종을 받아 명부공사를 행하시니라. 상제께서 형렬에게 "朝鮮冥府를 全 明淑으로, 淸國冥府를 金 一夫로, 日本冥府를 崔 水雲으로 하여금 주장하게 하노라"고 말씀하시고 곧 "하룻밤 사이에 대세가 돌려 잡히리라"고 말씀을 잇고 글을 불사르셨도다.(공사 1장 7절)

나아가 전명숙과 최수운이 각각 천계에 위치하는 조선과 일본의 명부(冥府) 수장(首長)이 되었다는 것은 살아서 인계에서의 공적과 아직 해소되지

얕은 원한이 해원에 있어 지계의 특정 지역과 연결되어 이루어지고 그에 대한 평가와 공훈(功勳)에 있어 천계로 카타고리가 연결되는 순환성속에 천지공사에 있어 삼계의 유기적 통합성을 보여 주는 것이 될 것이다. 이러한 면은 「명부의 착란에 따라 온 세상이 착란하였으니 명부공사가 종결되면 온 세상 일이 해결되느니라」(공사 1장 5절)고 한 부분에서 「천상 신계(명부)와 지상위 인계(세상 일)」가 구조적으로 동체임을 밝힌 내용에서도 찾을 수 있다. 공사를 통한 해원만이 아니라 특정 지역들이 일련의 공사에 있어 쓰여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해원을 뒤의 IV장에서 다룬 「지상신선」공사의 층위와 관련하여 볼 때, 후천 선경이라는 이상세계가 전개되면서 인간에게 있어서도 이제 완성의 시운이 상제의 해원 이념 아래 도래하게 된다. 이러한 인간 개조를 통한 지상신선의 실현은 「도통(道通)」이라는 용어로 대표된다. 이 도통은 해원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일임을 볼 수 있다.

또 상제께서 말씀은 계속하시기를 “孔子는七十二명만 통예시켰고 석가는 五백명을 통케 하였으나 도통을 얻지 못한 자는 다 원을 품었도다. 나는 마음을 닦은 바에 따라 누구에게나 마음을 밝혀주리니 상제는 七일이요, 중재는 十四일이요, 하재는 二十一일이면 각기 성도하리니 상등은 만사를 임의로 행하게 되고 중등은 용사에 제한이 있고 하등은 알기만 하고 용사를 뜻대로 못하므로 모든 일을 행하지 못하느니라” 하셨도다.(교운 1장 34절)

위에서 공자 석가 밑에서 도에 통하지 못해 원을 품은 사람들이 있었음을 생각할 수 있다. 나아가 공자 석가의 도에 통했다하더라도 더 높은 경지의 도에 통하고자하는 소망이 있을 수 있다. 인간을 개조해 도통군자가 된다는 것은 지상신선이 된다는 의미와 통하며 이것은 인간 존중 정신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인간에 대한 존중이 없이 이루어지는 형식화된 외양이라면 도를 통하게 해서 일을 맡게 할 연고가 없는 것이며 이에 「천지생인용인(天地生人用人)」¹⁾이라는 주장이 있게 된 것이다. 인간 개조는 인간 완성과 관련된다. 그러면 위에서 다룬 내용을 바탕으로 인간을 개조한다는 주장의 배경에 내재한 사상은 무엇인가. 인간의 소망인 완성된 존재를 이루기 위해서이며

1) 천지가 인간을 낳아서 쓴다

인간을 개조해 신선을 실현시키겠다는 것은 인간에 대한 존중이다. 기존의 인간의 차원을 한 차원 높이는 인간애의 실천이다.

다음으로 인존시대와 해원에 기저해서 지상신선의 가능성을 찾아 보기로 한다. 「신선화는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내용이 될 것이다. 신선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크게 세 가지 면에서 정리해 보기로 한다.

첫째 상제의 권능이다.

상제의 권능은 천 지 인 삼계에 대한 대권으로 나타났다.

상제께서 이듬해 사월에 김 형렬의 집에서 삼계를 개혁하는 공사를 행하셨도다. 이 때 상제께서 그에게 가라사대 "다른 사람이 만든 것을 따라서 행할 것이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야 하느니라. 그것을 비유컨대 부모가 모은 재산이라 할지라도 자식이 얻어 쓰려면 쓸때 마다 얼굴이 쳐다보임과 같이 낡은 집에 그대로 살려면 엎어질 염려가 있으므로 불안하여 살기란 매우 괴로운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개혁하여야 하나니 대개 나의 공사는 옛날에도 지금도 없으며 남의 것을 계승함도 아니요. 운수에 있는 일도 아니요. 오직 내가 지어 만드는 것이니라. 나는 삼계의 대권을 주재하여 선천의 도수를 뜯어고치고 후천의 무궁한 선운을 열어 낙원을 세우리라"하시고 "너는 나를 믿고 힘을 다하라"고 분부하셨도다.(공사 1장 2절)

개혁장으로서 상제는 천지인 삼계를 개혁하는 대권으로 낙원을 만든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대권은 천지인에 걸쳐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간에 대해서는 대권으로 인간을 개조할 수 있는 차원에까지 이를 수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아래의 내용은 그러한 가능성을 나타낸다.

상제께서 "나는 하늘도 뜯어고치고 땅도 뜯어고치고 사람에게도 신명으로 하여금 가슴 속에 드나들게 하여 다 고쳐 쓰리라. 그러므로 나는 약하고 병들고 가난하고 천하고 어리석은 자를 쓰리니 이는 비록 초목이라도 기운을 붙이면 쓰게되는 연고이니라" 말씀하셨도다.(교법 3장 1절)

이제 하늘도 뜯어고치고 땅도 뜯어고쳐 물샷 틈없이 도수를 짜 놓았으니 제한 도에 돌아닿는 대로 새 기틀이 열리리라. 또 신명으로 하여금 사람의 뱃속에 출입케 하여 그 체질과 성격을 고쳐 쓰리니 이는 비록 말뚝이라도 기운을 붙이면 쓰임이 되는 연고이니라.(교법 3장 4절)

초목이나 말뚝이라도 기운을 붙이면 쓰게 된다는 말은 상제의 능력이 기(氣)를 자유자재화할 수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기의 전이가 인간에게 일어날 때 말뚝이나 초목이 어떤 다른 용도로 쓰여지듯 인간개조의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하늘과 땅만이 아니라 인간까지 모두 고칠 것이라는 선언은 인간을 개조해 지상에 신선을 있게 한다는 목적에 토대를 제공하는 내용이 된다. 상제의 삼계 대권에 있어 초월성은 신도(神道)의 원리하에 나타난 권능의 발현이다. 상제는 신도에 따라 삼계대권(三界大權)을 발휘하여 천지공사를 이루어 나갔으며 이를 통해 어려움에 처한 생민들을 구제하였다. 상제를 따르던 종도들과 일반 민중들은 상제의 삼계대권으로 표현된 초월성을 보고 느끼며 그들의 외경심(畏敬心)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외경심은 신조(信條)의 삼요체(三要諦)에 속하는 경(敬)에 있어 신앙심 형성과 수행에 일련의 규범적 모델로 작용할 수 있다. 상제의 초월성은 자연현상을 조절하는 면으로 나타나 비, 뇌성, 바람, 태양 등을 임의대로 다루었는데 이를 목격한 종도의 마음에는 외경심과 그에 따른 신앙이 생기게 된다. 이와 같은 신앙심은 다양한 인간사의 일들을 주재 관장하는 상제의 권능을 접하며 민중들에게 형성되어 그들이 상제를 추종하게 되는 주요한 계기가 되었다. 일상사에서 나타난 상제의 권능이 인간적 차원에서는 외경의 대상이었고 신앙의 기틀은 이러한 신비감에서 뿌리깊게 당시 조선 사회에 퍼져나갔던 것이다.²⁾

둘째 신명의 작용이다.

인간의 몸은 신적 존재의 작용으로 개조될 수 있음을 다음에서 볼 수 있다.

상제께서 "나는 하늘도 뜯어고치고 땅도 뜯어고치고 사람에게도 신명으로 하여금 가슴 속에 드나들게하여 다 고쳐 쓰리라(교법 3장 1절)

이제 하늘도 뜯어고치고 땅도 뜯어고쳐 물샷 틈없이 도수를 짜 놓았으니 제한 도에 돌아닿는 대로 세 기틀이 열리리라. 또 신명으로 하여금

2) 高南植, 「삼요체 성경신에 대한 소고」, 大巡思想論叢 제12집, 大巡思想學術院, 2001.

사람의 뱃속에 출입케 하여 그 체질과 성격을 고쳐 쓰리니 이는 비록 말뚝이라도 기운을 붙이면 쓰임이 되는 연고이니라.(교법 3장 4절)

위에서 신을 인간 몸에 드러나게 하여 인간을 고쳐 쓰게 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작용을 통해 인간의 몸이 개조될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이것은 「천지에 신명이 가득차 있으니 비록 풀잎 하나라도 신이 떠나면 마를 것이며 흙 바른벽이라도 신이 옮겨가면 무너지나니라.」(교법 3장 2절)는 말처럼 삼라만상(森羅萬象)에 존재하는 신의 속성으로 그 가능성의 실마리를 찾게 된다. 「구령삼정주(九靈三精呪)」에서 인간의 구령삼정이 천상의 구성(九星) 및 삼태성(三台星)과 관계되며 「오장주(五臟呪)」에서 인간의 오장이 동서남북중앙에 관계된 오방신장과 연관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삼태성과 구성의 신 그리고 오방신장이 구령 삼정 오장이라는 인간 몸에 작용하는 일련의 메카니즘이 형성된다. 또한 신명이 신체의 배부분을 통해 인간의 몸에 작용하여 체질과 성격이 바뀌어지는 인간 몸의 개조가 이루어지는 논리 앞에 서게 된 것이다. 신적 존재가 마음에 작용함을 다음에서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육체에 있어서는 그 가능성이 더 커질 수 있는 장을 제공할 수 있다.

하늘이 쓰는 것과 땅이 쓰는 것, 그리고 사람이 쓰는 것이 모두 마음에서 통제된다. 마음은 귀신이 작용하는 중요 기관이고, 문호이며, 도로이다. 추기를 열고 닫고, 문호를 들고나며, 도로를 오고 가는 신이 혹은 선하기도 하고, 혹은 악하기도 하니 선한 것은 스승으로 본받고, 악한 것은 고쳐라. 내 마음의 추기, 문호, 도로는 천지보다 더 크다.(天用地用人 統在於心 心也者 鬼神之樞機也 門戶也 道路也 開閉樞機 出入門戶 往來道路 神 惑有善 惑有惡 善者師之 惡者改之 吾心之樞機門戶道路 大於天地)(행록 3장 44절)

여기에서 신은 마음을 추기 문호 도로로 하여 작용함을 볼 수 있다. 마음도 신의 작용처가 되고 있음이 나타난다. 몸은 어떠한가. 신명이 사람의 뱃속에 드러든다는 것은 몸의 일부분인 배에 작용함을 상제가 밝힌 것이다. 그 작용의 메카니즘은 마음이라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무형의 것에 작용하는 신적 존재의 질서를 볼 때 유형의 몸에 작용하는 신적 존재의 일련의 작용은 더욱 쉽게 일어날 수 있다.

상제께서 종도들에게 가르치시를 "하늘이 사람을 낼 때에 헤아릴 수 없는 공력을 들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선령신들은 육십년 동안 공에 공을 쌓아 쓸만한 자손 하나를 타 내되 그렇게 공을 드려도 자손 하나를 얻지 못하는 선령신들도 많으니라. 이 같이 공을 드려 어렵게 태어난 것을 생각할 때 꿈같은 한 세상을 어찌 잠시인들 헛되게 보내리오" 하셨도다.(교법 2장 36절)

그리고 "내가 도통줄을 대두목에게 보내리라. 도통하는 방법만 알려주면 되려니와 도통 될 때에는 유 불 선의 도통신들이 모두 모여 각자가 심신으로 닦은 바에 따라 도에 통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어찌 내가 홀로 도통을 맡아 행하리오"라고 상제께서 말씀하셨도다(교운 1장 41절)

위에서 선령신들이 60년간의 공덕을 들여 자손 하나를 타낸다는 것은 신의 노력으로 인간이라는 존재가 생겨나게 됨을 밝힌 것으로 이러한 인간의 지상 존재에 대한 신적 존재의 작용력은 인간개조에 있어서도 다른 차원의 동떨어진 구조와 형식을 갖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이것은 도통을 베풀어 주기를 바라는 종도에게 청을 꾸짖고 「각 성(姓)의 선령신이 한 명씩 천상 공정에 참여하여 기다리고 있는 중」 이라고 한 것에서 볼 수 있는데 도통이 인간개조 지상신선화에 밀접하고, 그것이 선령신의 「천상공정(天上公延)」이라는 신계 질서하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은 인간의 신선화에 대한 단서를 주게 된다. 여기에 유불선의 도통신들이 또한 관계함으로서 인간 개조의 틀이 탄탄한 배경을 갖게 되는 것이다.

셋째 인간의 수도이다.

인간의 완성은 대순사상에서 도통군자로 표현되는데 이 도통군자는 심(心)을 닦아 완성된 경지에 있고 몸에 있어서 개조를 통해 신선화된 차원이다. 그런데 다음에서와 같이 인간이 능력을 부릴 수 있는 데는 수행의 결과하에서 가능한 것이다.

상제께서 어느날 한가로히 공우와 함께 계시는데 이 때 공우가 옆에 계시는 상제께 "東學呪에 降을 받지 못하였나이다"고 여주니 "그것은 다 濟愚降이고 天降이 아니니라"고 말씀하셨도다. 또 "만일 천강을 받은 사람이면 병든 자를 한번만 만져도 낮게 할 것이며 또한 건너다 보기만 하여도 나올지니라. 天降은 뒤에 있나니 잘 닦으라"고 알려주셨도다.(교

운 1장 58절)

인간이 자신을 수양한 정도에 따라서 강(降)을 받아 신이(神異)한 능력을 발휘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인간의 노력에 따라 인간이 개조될 수 있음을 말해 준다. 인간 개조를 통해 나타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은 「병든 자를 한 번만 만져도 낫고 건너다 보기만 해도 낫는다」는 것이다. 천강은 상제에 의해 있게 되는 작용인데 이것을 받기 위해서는 인간 자신의 투철한 수도가 있어야됨을 볼 수 있다. 천강을 받아 위 인용문에서와 같은 치유의 능력이 나온다는 것은 인간이 그 차원을 한층 높혀 신선적 경지로 개조됨으로서 가능한 일임을 말해 준다.

Ⅲ. 땅과 인간의 調化논리에 나타난 統合性

「신인조화(神人調化)」라는 말이 종지에 있다. 신과 인간의 조화를 말한다. 이점은 이제 지상에 신선을 이루고 지상에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땅과 인간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하에서 「지인조화(地人調化)」의 관계로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 앞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전체적 측면에서 땅에 대한 해원이 이루어져 인계와 지계의 관계가 밀접해지고 그러한 통일적 지기(地氣) 체제하에서 인간의 인존화가 기약될 수 있는 것이다.

지상에 신선을 이루고 지상에 천국을 이루겠다는 것은 인간세계를 사랑하는 정신이다. 종말과는 다른 정반대의 개념이다. 종말적, 염세적 관념이 아닌 지상 인간세계를 도화낙원(道化樂園)으로 만들기 위해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정신과도 일맥 상통하는 것이다. 이것은 인존의 정신이 되는 바 이제 앞장에서 살펴 본 인간개조의 기저와 가능성 위에서 순차적으로 지계관련 공사와 신선화를 위한 도통공사등을 살펴 보기로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두 개의 축이 지향하는 궁극점이 인존에 있음을 논의 과정에서 언급하기로 한다. 삼계의 통합적 관점에서 지계에 대한 대순사상에서의 비중은 인간들이 의거해 살고 있는 곳으로서 중요하다. 영역적 관계에서, 땅의 의미 즉 지상을 존중한다는 것은 이것은 지상주의 사상이 될 것이다. 풍수와 땅의 관계는 인간의 삶의 터전이며 모태임을 보여준다. 땅은 풍수 사상과 관

련하여 대순사상에서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상제께서 어느날 공우를 데리시고 태인 보림면 장자동을 지나는 길가에 서 墓를 보시고 공우에게 이르시니라. "이 穴은 臥牛形이나 琴穴形이라고 불리우니라. 그것은 형명을 잘못 지어서 發蔭이 잘못 되었느니라. 어디든지 혈명을 모르거든 龍尾없이 造墳하였다가 명사에게 혈명을 지은 뒤에 용미를 달면 발음이 되나니라" 하셨도다.(행록 4장 9절)

혈명등이 나오는 가운데 풍수에 대한 대중들의 상식과 상제에 의해 소개된 지기의 발음에 대한 가르침은 일반론적으로 보아 풍수 개념이 대순사상에 있어 상당히 비중있게 다루어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일상적 상식의 차원을 넘어 교화적 위치까지 땅에 대한 논리가 깊숙이 들어와 있음을 알 수 있다.

김 갑철이 친산을 면례하려고 모든 기구를 준비하였더니 상제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면례하여 주리라"하시고 준비한 모든 물품을 불사르시고 난 뒤에 "그 재를 앞 내에 버리고 하늘을 쳐다보라"하시니 갑철은 이상한 기운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빠치는 것을 보았도다.(행록 3장 30절)

면례에 있어 상제가 보여준 관련 물품의 소지는 면례와 똑 같은 효과를 갖는 것으로서 기의 전이라 할 수 있다. 이상한 기운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뺏겼다는 점이 그것을 말해 주는데 면례에 있어 상제의 신이한 능력으로 똑 같은 효과를 발휘하게 됨을 볼 수 있다. 그러면 땅은 인간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상제께서 무더운 여름 날에 신방축 공사를 보시고 지기를 뽑으셨도다 종도들이 상제께서 쓰신 많은 글을 태인 신방축의 대장간에 가서 풍긋 불에 태웠나니라. 며칠 후에 상제께서 갑철을 전주 김 병욱에게 보내여 세상의 소문을 듣고 오게 하셨도다. 갑철이 병욱으로부터 일본 神戶에 큰 화재가 났다는 신문 보도를 듣고 돌아와서 그대로 상제께 아뢰이니 상제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일본의 지기가 강렬하므로 그 민족성이 탐욕과 침략성이 강하고 남을 해롭게 하는 것을 일삼느니라. 옛적부터 우리 나라는 그들의 침해를 받아왔노라. 이제 그 지기를 뽑아야 저희의 살림이 분주하게 되어 남을 넘보는 겨를이 없으리라. 그러면 이 강산도 편하고 저희도 편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전날 신방축 공사를 보았음은

神戸와 어음이 같음을 취함이었으니 이제 신호에 큰 불이 일어난 것은 앞으로 그 지기가 뿔힐 징조이로다”고 하셨도다.(공사 3장 31절)

일본의 지기에 대한 이야기이다. 민족성을 나쁘게 만드는 지기를 고치기 위해 공사적 차원에서 일을 처리했음을 밝히고 있다. 땅은 인간 세상에 있어서 민족의 성향을 결정짓는 요소임을 극명히 보여 준다. 조선과 일본관계에 있어서 임란 때의 적대적이던 과거사를 청산하고 동아시아에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조선을 위한 공사이며 국가를 단위로 일어날 수 있는 인간적 불행을 해소하는데 지기의 발제(拔除)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점은 지계와 인계의 하나의 조직체로서의 유기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완전히 변화되어 이제 인간에게로 명당의 개념이 바뀌어짐을 볼 수 있다.

금산사 靑蓮庵의 중 金 玄贊이 전부터 상제의 소문을 듣고 있던 차에 상제를 만나게 되어 명당을 원하니 상제께서 그에게 <믿고 있으라>고 이르셨도다. 그후 그는 환속하여 화족을 밝히고 아들을 얻었느니라. 그리고 金 秉旭이 또한 명당을 바라므로 상제께서 역시 <믿고 있으라>고 말씀하셨도다. 그후 그도 바라던 아들을 얻었느니라. 수년이 지나도록 명당에 대한 말씀이 없으시기에 병욱은 <주시려던 명당은 언제 주시나이까>고 여쭙니 상제께서 <네가 바라던 아들을 얻었으니 이미 그 명당을 받았느니라>고 이르시고 <선천에서는 埋白骨而葬之로되 후천에서는 不埋白骨而葬之니라>고 말씀을 하셨도다. 그후 얼마 지나 현찬이 상제를 뵈옵고 명당을 주시기를 바라므로 상제께서 <명당을 써서 이미 받음 되었나니라>고 말씀이 계셨도다(행록 1장 37절)

위에서 명당의 발음이 풍수적 기법에 의해 일어나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명당을 바라는 두 사람의 바람이 각각 아들을 얻음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특이하며 새로운 요소가 된다. 이것은 「불매백골이 장지(不埋白骨而葬之)」라는 후천의 새로운 질서와 관련되는 것으로서 삼계의 상호 상대적 위상이 변모되는 면을 나타낸다. 명당의 개념이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체제로 변했음을 알 수 있다. 아들을 얻었으니 그 명당을 받았다고 한 것이 그 점을 말해준다. 여기에서 인존시대의 도래로 변모되는 삼계 질서와 함께 땅으로 대변되던 명당의 개념이 인간으로 치환되는 가변성을 볼 수 있다.

상제께서 그 후 경석에게 "너의 선묘인 九月山 金盤死雉의 穴蔭을 옮겨 와야 되리라"고 명하시고 공우에게 북을 치게 하고 말씀하시기를 "이 혈음은 반드시 長風을 받아야 발하리라" 하셨도다. 이 때 李道三의 아우 長豊이 문득 들어오거늘 공우가 북채를 잠깐 멈추고 "장풍이 오느냐"고 인사를 하는도다. 이것을 보시고 상제께서 "이제 그만 그치라"고 말씀하셨도다.(행록 3장 41절)

위에서 풍수에 입각해 땅과 관련되어 특별했던 일들이 이제 인간적 영역에서 통제될 수 있음을 볼 수 있다. 무게 중심이 인계로 넘어 오는 전이의 메카니즘을 찾게 된다. 땅의 혈음을 옮겨오는데 있어 필요한 것은 장풍(長風) 곧 「긴 바람」이다. 그런데 그것이 이도삼의 아우인 이장풍의 이름인 「장풍」으로 대신해서 쓰여지고 있다. 천지자연의 조화로 일어나는 바람이 동일음인 인간의 이름으로 치환되어 상제의 공사 앞에서 쓰여져 처결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경우는 땅의 혈음에 있어 인간과 관계된 요소가 이용된 것으로서 역시 계 상호간의 상통을 통해 통합적 세계관을 이루어 나가는 면을 찾을 수 있다.

상제께서 군산에 가셔서 공사를 보실때 "地有群倉地 使不天下虛 倭萬里 淸萬里 洋九萬里 彼天地虛 此天地盈"이라고 써서 불사르셨도다.(공사 3장 30절)

군산이라는 곳의 미래적 모습을 글을 통해 공사로서 표현하고 있다. 지역 하나 하나가 나름대로의 역사적 문화적 지역적 구도 관계하에서 특정한 의미를 갖고 살아 숨쉬는 생명력을 내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상제께서 어느날 종도들에게 "원평이 장상지지(將相之地)이고 대흥리는 왕자포정분야처(王子布政分野處)로써 가작천간옥(可作千間屋)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도다.(예시 44절)

원평과 대흥리가 원평이 장상(將相)의 땅이 되고 대흥리가 왕자(王子)가 정치를 펴고 땅을 나눠주는 곳으로 가히 천간이나 되는 집을 지을 수 있게 되는 것은 어떤 이유인가. 이점은 원평과 대흥리에 대한 지명과 관련된 자의적 해석내지는 역사적 관련성 그리고 이외의 특수한 의미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자의적 뜻으로 볼 때 대흥리는 한자로 「大興理」인데

「大興」은 크게 흥한다는 뜻으로서 왕자가 정치를 편다는 것과 또 천간옥(千間屋)을 짓게 된다는 말과 통하는 면을 볼 수 있다. 다음의 예에서도 지명의 뜻이 공사에 이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헛도수를 말씀하신 후 어느날 상제께서 이치복과 여러 종도에게 “불가지(佛可止)는 불이 가이 그칠 곳이라는 말이오. 그곳에서 가활만인(可活萬人)이라고 일러왔으니 그 기운을 걸어 창생을 건지리라.”고 말씀하시고(예시 54절)

「불가지(佛可止)」는 위에서도 나타나듯이 「불(佛)이 가이 그친다」는 뜻인데 그 지명적 뜻은 대순사상적 의미에서는 「응당 모름지기 원조이며 으뜸은 태호 복희씨인데 도인들은 무슨 일로 불가를 많이 하는가(應須祖宗太昊伏羲 道人何事多佛歌)」라는 표현에서 처럼 불(佛)에 대한 운기가 끝나고 앞으로는 「가히 모든 사람을 살게 한다」는 새로운 의미로 치환(置換)되어 그 지역이 쓰여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곧 마침(終)과 시작(始)속에서 반대적 개념이 이어지며 하나의 땅이 다시 부활하는 조화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아울러 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산하의 대운을 거두어 들이는 공사로 그 양상이 전개된다.

상제께서 여름 어느날에 황 응종의 집에서 산하의 대운을 거둬들이는 공사를 행하셨도다. 상제께서 밤에 이르러 백지로 고깔을 만들어 응종에게 띄우고 “자루에 든 벼를 꼬집어 내서 사방에 뿌리고 백지 백 이십장과 양지 넉장에 글을 써서 식혜 속에 넣고 인적이 없을 때를 기다려 시궁 흙에 파묻은 후에 고깔을 쓴 그대로 세수하라”고 명하시니 그는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니 별안간 인당에 콩알과 같은 사마귀가 생겼도다. 응종이 그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 벼를 뿌린 것을 보았으나 한 알도 보이지 않고 없어졌도다.(공사 3장 7절)

각 지역의 정기를 뽑아 모아 통일하는 것은 새로운 질서를 짜는 작업으로 볼 수 있다. 지역 정기의 발취 통일이 인계에서 이루어져야할 상생적 세계와 대응되는 일련의 상호 연관성을 이루어야함을 보여 준다. 위에서 산하의 대운을 거두어 들이는데 있어 황응종의 집에서 공사가 이루어지는데 고깔, 벼이삭, 글, 식혜등이 이용되고 황응종의 일련의 행위가 수반된다. 벼를 뿌렸는데 한알도 보이지 않고 없어졌다는 것은 신비감을 주는 면이다. 산하의

대운을 거두어 들였다는 이 공사는 상당히 난해한 면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데 이것은 인간의 차원에서 이해할 수 없는 풀이의 미학이 존재하는 차원임을 일면 볼 수 있다.

요컨대 땅과 인간의 조화(調化)는 땅이 인간적 정서와 결합하는데 있어 하나의 요소이며 삼계의 통합적 체제를 드러낸 것이다. 이것은 그 지향하는 궁극점이 인존으로 귀결된 작업이다. 「군산」 「원평」 「대흥리」 「불가지」의 지명과 「산하대운을 거둔 일」 등은 지상의 땅이 공사적인 면으로 인계의 미래상과 연결되고 있는 것이며 이것은 인존 세계를 구축해가는 기저로 작용하고 있다 하겠다.

IV. 統合性에서 본 地上神仙 공사의 層位

지상신선은 도통공사들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질 수 밖에 없다. 그위에 땅 관련 공사를 축으로 삼계 화평이 어떠한 면모로 전개되며 중심 논의인 지상선 관련 공사들³⁾에서 연결점들을 찾아 소략히 세가지 면에서 언급하기로 한다.

첫째로 단주의 해원에 나타난 단주의 수장화(首長化)와 조선국운의 관련성이다.

오선위기혈을 포함하는 가운데 삼계적 측면에서, 「사명당(四明堂)」에 대한 공사는 삼계의 유기적 통합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월 어느날 김 보경의 집에서 공사를 행하시는데 백지 녀 장을 펼쳐시고 종이 귀마다 "泉谷"이라 쓰시기에 그 뜻을 치복이 여쭙어 물으니 상제께서 "옛날에 절사한 원의 이름이라"고 가르쳐 주시고 치복과 성환으로 하여금 글을 쓴 종이를 마주 잡게 하고 "그 모양이 상여의 護防傘과 같도다"고 말씀하시니라. 그리고 갑철은 상제의 말씀이 계서서 바깥에 나갔다 들어와서 서편 하늘에 한점의 구름이 있는 것을 아뢰니 다시 명하시기에 또 나가서 하늘을 보고 들어와서 한점의 구름이 온 하늘을 덮은 것을 여쭙었더니 상제께서 백지 한 장의 복판에 四明堂이라 쓰시

3) 단주 해원공사, 시루산 공사, 금강산 공사들을 중심으로 지상선 가능성을 도통공사와 연결지어 살펴 본다.

고 치복에게 가라사대 "궁을가에 있는 사명당 갱생이란 말은 중 사명당이 아니라 밝을 명자를 쓴 사명당이니 조화는 佛法에 있으므로 胡僧禮佛穴이요. 無病長壽는 仙術에 있으니 五仙圍碁穴이요. 國泰民安은 群臣奉詔穴이요. 仙女織錦穴로 창생에게 비단 옷을 입히리니 六月十五日 神農氏의 제사를 지내고 공사를 행하리라. 금년이 천지의 한문이라. 지금 일을 하지않으면 일을 이루지 못하니라" 하셨도다.(행록 5장 15절)

사명당 갱생은 네 명당이 갱생한다는 의미로 위에서 해석되어 쓰여지고 있다. 그리고 그 명당이 불도와 선도 그리고 국태민안 및 창생의 생활문제와 관련되며 땅기운의 발음을 갱생이라는 의미에서 처결하고 있다, 인간적 삶의 선도와 불도의 종교적 사상과 국가적 안녕 및 생활의 요소들이 지기의 발음과 연계된다는 카타고리를 찾게 한다. 이러한 네 명당의 갱생은 다음과 같은 양상으로 복합적 의미를 갖고 그 기운의 통합적 면모를 나타내게 된다.

이십일에 모든 종도들이 속속 동곡에 모이니 김 형렬.김 갑칠.김 자현 김 덕유.류 찬명.박 공우. 신 원일.이 치화.이 공삼.최 덕겸 등이요. 蔡士允은 처음으로 동곡에서 시좌하니라. 상제께서 류 찬명에게 天文地理 風雲造化 八門遁甲 六丁六甲 智慧勇力과 回文山 五仙圍碁穴 務安 僧達山 胡僧禮佛穴 長城 巽龍 仙女織錦穴 泰仁 拜禮田 群臣奉詔穴을 쓰게 하고 불사르셨도다.(행록 5장 21절)

위의 내용은 「옛적부터 上通天文과 下達地理는 있었으나 中察人義는 없었나니 이제 나오리라.」(교법 3장 31절)는 말처럼 천지인 삼계의 질서 체계에 있어 통합적 세계관을 보여 주고 있다. 앞에서 나온 사명당 갱생의 궁극적 지향점이 무엇인가를 말해주는 단서가 제시되고 있다하겠다. 이에 「天文地理 風雲造化 八門遁甲 六丁六甲 智慧勇力」이라는 말이 천문과 지리 그리고 인간의 완성된 경지(風雲造化 八門遁甲 六丁六甲 智慧勇力)를 나타내는 데 이글이 소지됨에 「사명당」으로 지적된 혈들과 함께 소지되었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계적 공사는 지기의 발음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도와 불도 국가적 안녕 생활의 면을 뛰어 너머 천지인 삼계의 통합이라는 면에까지 일련의 영향을 주는 요소로 공사속에서 쓰여지고 있음을 말해 준다 하겠다. 이는 땅이 갖고 있는 논리와 속성이 천문을 포함해

인간적 삶에까지 복합적으로 이어지며 삼계라는 통합적 세계관 안에서 유기체적인 질서로 삼계가 존재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사명당 갱생」과 「중찰인의는 없었나니 이제 나오리라」는 지적을 토대로 도통의 경지에서 「지혜용력(智慧勇力)」으로 이어지는 인존주의적 세계상을 귀결점으로 하는 궁극성을 말하고 있다 하겠다.

인간사에 있어서의 개인적 층들도 땅의 영향하에 일어난다는 점을 볼 때 단주의 원한의 문제도 이러한 맥락에서 포괄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상제께서 각 처에서 정기를 뽑는 공사를 행하셨도다. 강산 정기를 뽑아 합치시려고 父母山의정기부터 공사를 보셨도다. 부모산은 전주 母岳山과 淳昌 回文山이니라. 회문산에 이십 사혈이 있고 그 중에 五仙圍碁形이 있고 碁變은 唐堯가창작하여 단주를 가르친 것이므로 단주의 해원은 오선위기로부터 대운이 열려 돌아날지니라. 다음에 네 明堂의 정기를 종합하여야 하나라. 네 명당은 淳昌回文山의 오선위기형과 務安 僧達山의 胡僧禮佛形과 長城 巽龍의 仙女織錦形과 泰仁 拜禮田의 群臣奉詔形이니라. 그리고 부안 변산에 二十四 혈이 있으니 이것은 회문산의 혈수의 상대가 되면 해변에 있어 海王의도수에 응하느니라. 회문산은 山君, 변산은 海王이니 상제께서 그 정기를 뽑으셨도다. (공사 3장 6절)

이후의 「오선위기」와 관련된 언급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상제께서 종도들을 데리고 계실 때 "현하 대세가 五仙圍碁와 같으니 두 신선이 판을 대하고 있느니라. 두 신선은 각기 혼수하는데 한 신선은 주인이라 어느 판을 혼수할 수 없어 수수 방관하고 다만 대접할 일만 맡았나니 연사에만 큰 흠이 없이 대접만 빠지지 아니하면 주인의 책임은 다한 것이로다. 바둑이 끝나면 판과 바둑들은 주인에게 돌려지리니 옛날 한고조는 말위에서 천하를 얻었으되 우리나라는 座上에서 득천하 하리라.(예시 28절)

당시의 조선후기의 시대적 상황을 설명하는데 오선위기의 형국이 비유적으로 인용되고 있다. 조선을 바둑판에 신선들을 조선과 조선 주변의 나라에 비유하고 있다. 단주에 대한 해원을 오선위기혈에 부친다하고 조선국운을 돌린다하는데 이러한 바둑판과 바둑판을 둘러싼 신선들의 의미가 예사롭게 비유되고 있지만은 않음을 볼 수 있다. 한고조의 득천하 예를 들며 조선의 국운이 「좌상 득천하」라는 상징적 표현은 일련의 공사들이 지혈의 명을

중심으로 정렬되며 단주라는 인물에 대한 해원과 조선에 대한 해원이 내부적 끈을 단단히 맺고 있음을 공사의 흐름속에서 보게 된다.

상제께서 淳昌 避老里에 계실 때 황응중이 배알하니 상제께서 "고부사람이 오니 바둑판을 가히 운전하리라"하시고 英雄消日大中華 四海蒼生如落子란 글을 외워주셨도다.(예시 32절)

위의 인용문에서 「바둑판을 운전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바둑을 두는 것과는 다른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운전은 돌리거나 회전시킨다는 것이니 천지공사의 주재자로서 상제의 의도가 이제 진행되어 나감을 생각할 수 있다. 앞에서의 논의를 연장한다면 오선위기와 관련 단주의 해원과 조선의 국운이 어떤 변화의 시점에서 있음을 볼 수 있고 이러한 바둑판의 운전은 이제 영웅은 대중화에서 날을 보내게 되고 반면에 천하 창생들은 바둑판에서 떨어지는 바둑돌과 같은 상황이 전개됨을 한시(漢詩)를 통해 예시하고 있는 점도 나타난다. 바둑판과 바둑돌 그리고 그것을 움직이는 존재는 상징과 비유 위에서 일상적 세계와의 연관성을 맺는 공사의 매개물이 되고 있다.

단주에 대한 해원에 있어 생각할 때 단주는 다음에 나타나듯이 불초하다 하여 왕위를 받지 못하고 원한을 갖고 죽었다. 인간적 차원에서의 갈등이 낳은 원한이다. 그러면 왜 오선위기라는 지혈과 관련해 단주의 원한을 해소하는 것인가. 그 자체가 땅이 인간의 일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상제께서 七월에 "예로부터 쌓인 원을 풀고 원에 인해서 생긴 모든 불상사 없애고 영원한 평화를 이룩하는 공사를 행하시니라. 머리를 굽으면 몸이 움직이는 것과 같이 인류의 기록에 시작이고 冤의 역사의 첫 장인 堯의 아들 丹朱의 원을 풀면 그로부터 수천년 쌓인 원의 마디와 고가 풀리리라. 단주가 불초하다 하여 요가 舜에게 두 딸을 주고 천하를 전하니 단주는 원을 품고 마침내 순을 蒼梧에서 崩케 하고 두 왕비를 瀟湘江에 빠져 죽게 하였도다. 이로부터 원의 뿌리가 세상에 박히고 세대의 추이에 따라 원의 종자가 퍼지고 퍼져서 이제는 천지에 가득 차서 인간이 파멸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인간을 파멸에서 건지려면 해원공사를 행하여야 되느니라"고 하셨도다.(공사 3장 4절)

특히 단주라는 역사적 인물에 대한 해원에 있어 그것이 땅의 혈자리 명과의 연관성하에 이루어졌다는 점은 흥미롭다. 위에서 단주의 해원은 왕위계승의 문제와 관련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단주가 만일에 왕위를 요로부터 받았다면 원한의 국면은 새로운 양상을 띠게 될 것이다. 따라서 단주의 원한을 해소하려면 그것은 일련의 방법에서 통수권을 갖게 되는 양상으로 해원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그가 왕위를 받지 못하고 받은 물건이 아버지인 요가 준 바둑판이다. 그리고 그 물건은 단주에게 있어 왕위를 상징하는 물표를 받은 것 하고는 정 반대되는 상징물이 된다. 그의 한을 표상하는 바둑판으로부터 우리는 해원을 연관짓는 면을 생각할 수 있다.

이것을 오선위기라는 다섯 신선이 바둑을 둘러싸고 있다는 지혈과 연관지었다는 점은 지계에 대한 의미를 강조하는 것으로 땅과 인간이라는 두 계의 동맹적 관계를 읽을 수 있다. 또 이렇게 해원에 있어 인간의 문제가 땅과 연계되어 그 풀음의 단서를 찾는 것은 계와 계 사이의 조화(調和)를 이루는 것으로 삼계의 통합적 질서를 여는 일련의 공사 작업이다. 그리고 단주에 대해서 왕위라는 면을 생각해보면 그것은 오선위기로부터 조선 국운을 돌려대운이 돌게 한다는 말처럼 조선국운과 연관됨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조선의 국운은 「조선상등국(朝鮮上等國) 공사와 「만국활계남조선(萬國活計南朝鮮)」이라는 내용처럼 단지 한 지역으로서의 조선이 아닌 상제 강세지와 천지공사의 장소라는 면에서도 그 의미는 범 우주적인 차원의 논의들과 연관지을 수 있다는 점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단주가 조선국운과의 상관성만이 아니라 단주는 의통 관련 공사라 할 수 있는 「동곡약방」 공사와도 확장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며 복합적이라 볼 수 있다.

약방을 설치하신 후 “元亨利貞奉天地道術藥局 在全州銅谷生死判斷”이란 글귀를 쓰셔서 불사르셨도다. 약장은 종삼 횡오 도합 십 오 간으로 하고 가운데에 큰 간이 둘 아래로 큰 간이 하나이니라. 상제께서는 그 위 십 오 간 중의 가운데 간에 “丹朱受命”이라 쓰고 그 속에 목단피를 넣고 그 아래에 “烈風雷雨不迷”라고 횡서하고 또 칠성경을 백지에 종서하고 그 끝에 “禹步相催登陽明”이라 횡서하고 약장 위로부터 뒤로 밀판까지 따라서 내려 붙이고 그 위에 “陽丁六月二十日 陰丁六月二十日”이라 쓰시니라. 궤안에 “八門遁甲”이라 쓰고 그 글자 위에 “舌門” 두 자를 낙인

하신 후 그 글자 주위에는 二十四점을 홍색으로 찍고 약방에 通鑑, 書傳 각 한질씩 비치하셨도다.(공사 2장 9절)

위에서 「단주수명(丹朱受命)」이라는 것은 「단주가 명을 받다」라는 뜻으로서 이 명은 약장과 관련지어 상제로부터 천명을 받는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약장 공사는 의통 공사 도통공사 등과 긴밀성을 갖게 되고 도통줄과도 그 상관성을 지을 수 있다.

그리고 "내가 도통줄을 대두목에게 보내리라. 도통하는 방법만 알려주면 되려니와 도통 될 때에는 유 불 선의 도통신들이 모두 모여 각자가 심신으로 닦은 바에 따라 도에 통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어찌 내가 홀로 도통을 맡아 행하리오"라고 상제께서 말씀하셨도다. (교운 1장 41절)

대두목 공사는 도통과 관련되며 이것은 상제의 종통을 받게 된다는 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단주에 대한 공사들을 종합해 볼 때 조선의 국운을 돌려 그의 원을 푸는 것만이 아니라 상제의 명을 받아 도통 공사에까지 이어지는 가운데 제위(帝位)를 계승 받지 못한 원한을 해소할 수 있는 수장(首長)의 차원에 까지 오르게 되는 점을 우리는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⁴⁾

단주라는 인물의 생애와 관계되는 물상을 혈명의 이름과의 유기적 연관성 하에서 해원의 모티프를 찾고자한 것은 단주의 해원으로 해원의 첫 장을 열고 또한 영원한 평화를 이룩한다고 한 점을 돌아 볼 때 지상의 의미가 일단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하겠다.

둘째로 「시루산」 공사에서 지명과 상징물에 대한 도통공사와의 연결선상에서의 해석이 지상선에 관계된다.

그러시다가도 다시 공부를 계속하셨는데 어느날 시루봉에서 眞法呪를 외우시고 五方神將과 四十八장과 二十八장 公事를 보셨도다. 이후에 상

4) 모든 공사에 대한 해석은 총체적 연관성속에 다양한 상징성을 담고 있는 것이 되기에 다각적인 해석의 실마리를 찾아야 하는 것이지만 천지인 삼계가 긴밀히 어떤 관련성을 갖고 이루어진 삼계 공사에 있어 기존의 역사적 사실들 그리고 전경에서 다루어진 연계적 상관성을 종합해 해석될 수 있는 여지는 갖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제께서 목에 붉은 수건을 걸고 雙丁里에 있는 金基鎭의 집에 가셔서 그에게 공사에 관해서 말씀하셨도다. 이 집에 동리 사람들이 많이 모이곤 하였도다. (행록 2장 10절)

위의 내용은 시루산에서 상제께서 행하셨던 공사의 일부분이다. 여기에는 주문과 관련된 것과 신명들의 공사 그리고 쌍정리의 김기진이라는 종도와 관련된 내용이 나온다. 여기에서 김기진에 집에 갈 때 상제는 목에 붉은 수건을 메고 갔다는 것이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서 볼 때 다음과 같은 구절을 연결지어 생각할 수 있다.

상제께서 본택에 간수했던 선대의 교지를 찾아 옥새가 찍힌 부분을 도려내고 불사르신 다음에 그 부분과 엽전을 비단에 싸서 한쪽에 끈을 달아 손에 들고 목에 붉은 베를 매고 딸각딸각 소리를 내시며 시루산을 오르내리면서 큰 목성으로 도통줄이 나온다고 외치시니 이 뜻을 모르고 사람들은 없어진 교지만을 애석하게 여겼도다.(예시 18절)

위에서 붉은 베를 매고 시루산을 오르내린 부분을 생각할 때 그리고 도통줄이 나온다고 한 것을 함께 살펴보면 시루산이라는 지명이 도통과 관련되어 쓰여지고 있음을 생각할 수 있다. 여기에서 시루산은 증산이고 이것은 상제의 호가 된다. 결국 상제로부터 이어지는 도통을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산으로서의 시루산과 인간의 호로서의 증산이 대비적으로 연결되어 일련의 도통공사가 이루어졌음을 찾을 수 있다. 또한 상제가 목에 붉은 수건이나 붉은 베를 매고 있는 것은 붉다는 것이 피를 상징화 시키는 것으로 쓰여져 도통의 혈통줄이 상제로부터 시작됨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바로 앞 예문에서 나온 「쌍정리(雙丁里)」라는 지명은 아래의 도통관련 공사에서 양정(陽丁)과 음정(陰丁)의 두 정(丁)과 일련의 연관성을 갖는 것으로 연결지어 공사의 방법과 의미등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⁵⁾ 옥새를 도려낸 선대의 교지는 상징적으로 대표되는 것으로서 조상들에

5) 약방을 설치하신 후 “元亨利貞奉天地道術藥局 在全州銅谷生死判斷”이란 글귀를 쓰셔서 불사르셨도다. 약장은 종삼 횡오 도합 십 오 간으로 하고 가운데에 큰 간 이 둘 아래로 큰 간 하나이니라. 상제께서는 그 위 십 오 간 중의 가운데 간에 “丹朱受命”이라 쓰고 그 속에 목단피를 넣고 그 아래에 “烈風雷雨不迷”라고 횡서하고 또 칠성경을 백지에 종서하고 그 끝에 “禹步相催登陽明”이라 횡서하고 약장 위로부터 뒤로 밑판까지 따라서 내려 붙이고 그 위에 “陽丁六月二十日 陰丁六月

대한 전대의 공적에 대한 평가이며 이것이 도통에 일련의 영향이 됨을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엽전을 비단에 싸가지고 딸각딸각 소리를 낸 부분에서, 엽전과 비단은 도통군자들이 누릴 복록을 상징하고 딸각딸각은 하나하나 도통이 나음을 소리로 형상화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 「금강산」 관련 공사에 나타난 「언어예시(言語豫示)」⁶⁾와 「제의예시(祭儀豫示)」의 신선화 작업들이다.

인간의 완성인 도통군자를 이루는 기저도 땅의 영기와 관계됨을 볼 수 있다.

상제께서 태인 도창현에 있는 우물을 가리켜 "이것이 젖(乳)샘이라."고 하시고 "도는 장차 금강산 일만 이천의 도통군자로 창성하리라. 그러나 후천의 도통군자에는 여자가 많으리라."하시고 "上有道昌 中有泰仁 下有 大覺" 이라고 말씀하셨도다.(예시 45절)

금강산(金剛山) 일만이천봉을 응기(應起)하여 인계 도통군자가 나온다는 것은 두 계의 유기적 연계성을 말해준다. 「후천의 도통군자에 여자가 많으리라」는 것은 금강산 내금강 봉우리 수가 외금강 수보다 많은 것과 관계되는 것으로 내금강은 여자에 외금강은 남자에 비유되고 있음을 생각할 수 있다. 여기에서 「上有道昌 中有泰仁 下有 大覺」은 「상은 도창에 있고 중은 태인에 있고 하는 대각에 있다」라는 뜻이며, 다시 도창 태인 대각이라는 의미가 도통에 있어 상 중 하의 차이를 결정짓는 요건이 되는데 이것은 전 북 도창현 태인면 대각리라는 지명과 궁극적으로 연결되는 맥락을 역시 볼 수 있다. 또한 이곳은 무극도가 창도된 지역으로서 무극도의 목적이 지상신선이라는 점에서도 도통군자와의 어떤 연계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도통줄을 전한다는 상제의 말씀을 생각할 때 무극도를 창도한 도주(道主)와 연결성을 맺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연결성은 다시 도주에서 도전으

二十日"이라 쓰시니라. 奎안에 "八門遁甲"이라 쓰고 그 글자 위에 "舌門" 두 자를 낙인하신 후 그 글자 주위에는 二十四점을 홍색으로 찍고 약방에 通鑑, 書傳 각 한질씩 비치하셨도다.(공사 2장 9절)

6) 예시에 있어 말을 통한 공사들을 가리킨다. 이하 제의 예시는 제의적 요소가 예시에 있어 중심이 되고 있을 때를 가리킨다. 용어적 정의는 필자가 정한 것임을 밝혀 둔다.

로 이어지는 종통의 선상에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게 됨을 「상제 - 도주 - 도전」으로 전수되는 종통 계승의 역사속에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금강산 공사로 돌아가 생각해 보면 다음의 금강산 겁기 제거 공사는 일만 이천봉에 붙어 있는 겁기와 관련되며 이 겁기를 제거하는데 있어 일련의 공사가 수반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상제께서 농암에서 공사를 행하실 때 형렬에게 이르시기를 “허미수가 중수한 成川 降仙樓의 일만 이천 고물은 녹줄이 붙어있고 金剛山 일만 이천봉은 겁기가 붙어있으니 이제 그 겁기를 제거하리라” 하시고 “내가 김 광찬, 신 원일과 함께 백지 일방촌씩 오려서 侍자를 써서 네벽에 붙이되 한 사람이 하루 사백자씩 열흘에 쓰라. 그리고 그 동안 조석으로 청수 한 동이씩 길어 스물 네 그릇으로 나누어 놓고 밤에 七星經 삼칠편을 염송하라” 명하시니라. 형렬은 명을 좇았으되 신 원일이 즐거이 행하지 아니하므로 상제께서 아뢰이니 상제께서는 “정읍 이 도삼을 불러서 행하라” 분부하시니라. 형렬은 그를 데려다가 열흘 동안 분부 대로 행한 후에 김 갑철을 보내어 일을 마쳤음을 상제에게 아뢰게 하였더니 상제께서 갑철에게 羊 한 마리를 사주며 “내가 돌아가기를 기다리라”고 이르셨도다. 상제께서 십 일월에 사기를 옮기는 공사를 보시고자 동곡에 돌아오셔서 전일에 주었던 양을 잡게 하고 그 양피를 손가락 끝에 묻혀 일만 이천 侍란 글자에 바르시니 양 피가 다한지라. 상제께서 “沙器를 金堤로 옮겨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 때 김제 水閣 林相玉이 왔기에 상제께서 청수를 담던 사기 그릇을 개장국에 씻어 그에게 주시니라. 그는 영문을 모르고 주시는 대로 그 그릇을 받았도다. 그는 며칠 후에 그 사기 그릇의 용처를 여쭙었더니 “인부를 많이 모아 일할 때 쓰라” 하셨도다. (공사 2장 13, 14절)

위에 나오는 공사를 앞의 「단주 해원공사」와 「시루산 공부」에서의 「도통(道通)」과 관련지어 몇가지 점을 생각해 보기로 한다. 양피에 대한 것이다. 위에서 양피는 「상제께서 갑철에게 양(羊) 한 마리를 사주며 “내가 돌아가기를 기다리라”고 이르셨도다. 상제께서 십 일월에 사기를 옮기는 공사를 보시고자 동곡에 돌아오셔서 전일에 주었던 양을 잡게 하고 그 양피를 손가락 끝에 묻혀 일만 이천 시(侍)란 글자에 바르시니 양 피가 다한지라」고 한 내용에 나타나듯이 「일만이천 시(侍)」라는 글자에 발라진다. 여기에서 양은 상제가 강제한 「신미(辛未)년」이 양띠로서 상제를 상징하는데 양피라는 것은 상제로부터 연원해 이어지는 혈통을 의미하고 있을 볼 수 있

다. 여기에서 일만이천시는 일만이천봉을 응기해 출현할 일만이천의 도통군자를 나타내는데 모신다는 「시(侍)」는 도통군자들이 상제의 뜻을 받들어 모시게 됨을 보여 주고 있다.

V. 結 論

삼계는 상호 유기체적 상태에서 존재하고 있다. 천지인 삼계가 천계와 지계, 천계와 인계, 지계와 인계로 위치하는 관계이며, 하나는 천계, 지계, 인계 나름대로의 각각의 계 안에서의 관계이다. 이 두가지를 총체적으로 종합할 때 우리는 삼계 통합적 관점이라는 대순사상의 우주관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이 글은 「신인조화(神人調化)」의 논의를 토대로 지(地)와 인(人)의 관계에 있어 「지인조화(地人調化)」라는 지계와 인계의 연관성에 주목하였다. 「땅의 논리가 어떻게 인간과 관련」되고 나아가 인간의 개조를 통한 도통으로 이루어지는 「신선화」의 측면을 몇 가지 공사 속에서 볼 수 있다.

이러한 토대위에서 삼계 관계 중에서 지계와 인계의 논리를 따라 몇 가지 천지공사의 예를 상정하고 지계를 바탕으로 한 「지상주의」의 의미에 대한 논의를 통해 「인간개조 지상신선실현」이 인간존중 즉 인존의 관점을 바탕으로 형성된 것임을 찾아 보았다. 또 신선화와 관련해서는 신선화가 도통과 긴밀하며, 도통공사들을 통해 인존세계를 구현하는 것임을 몇가지 층위에서 볼 수 있었다.

【참고문헌】

大巡眞理會 敎務部, 『典經』, 大巡眞理會 出版部, 1974.

高南植, 「삼요체 성경신에 대한 소고」, 『大巡思想論叢』 제12집, 大巡思想學
術院, 2001.